



우리 아이들의 시원한 여름을 부탁해~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힘든 여름을 보내지 않도록
전국 369개 지역사회 아동센터의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금융그룹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슬기로운 감정생활

이임광 편집국장



지 금은 대학생이 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애지중지 키우던 햄스터가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이는 나와 외가에 내려와 있었는데, 누나로부터 부고를 듣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비통한지 울음소리가 이불을 뚫고 닫힌 방문을 울려 어른들 모두 숨죽여야 했다. ‘제 아빠가 죽어도 저리 슬피 울까?’ 살짝 셈이 나기도 했지만 아이 셋 키우면서 이런 상(喪)은 처음이라 아이가 덜 상처받게 하려면 어떡해야 할지 난감했다. 30분 넘게 지속된 통곡이 잦아드느라 싶더니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그제 더 걱정이 됐다. 울다 지쳐 기진맥진한 건 아닌가, 얼른 들어가 이불을 걷어냈다. “그럼 그렇지, 네가...” 조금 전까지 세상 다 잃은 듯 울던 아이가 스마트폰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내가 아이의 천연덕스런 반전에 상처받을 지경이었다.



아이들도 짧지만 깊은 슬픔에 빠진다

서 울 집으로 올라와 ‘햄식이’(아이가 지어준 이름이다)의 주검을 본 순간 아이는 다시 깊은 슬픔에 빠졌다. 아이의 뜻대로 아파트 화단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열한 살 인생에 처음 치른 장례를 마치자마자 아이는 이번에도 햄스터와 함께 슬픔도 묻어버린 듯 순식간에 일상으로 돌아왔다. 햄스터의 죽음을 대하는 아이의 태도는 나에게 한 가지 의문을 남겼다. 아이는 어떻게 30분의 울음과 10분짜리 장례식으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3년 후 쯤 프랑스 심리치료사 크리스텔 프티콜랭(Christel Petitcollin)이 쓴 《잃어버린 감정을 찾아서》를 번역출간하면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슬픔은 인생의 어느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한다. 자동차의 클러



치 같은 것이다. 기어를 다른 톱니바퀴에 물리려면 ‘일단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 프티 콜랭은 슬픔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전 단계에 보내는) ‘애도의 시간’으로 정의했다.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통곡한 30분과 햄스터를 묻어준 10분이 그런 애도의 시간, 즉 슬픔이다. 어떻게 30분 남짓 그토록 슬퍼하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게임에 열중할 수 있느냐고, 고작 10분 정도 장례를 치른 것으로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른의 시각일 뿐이다. 어린 시절 신(神)으로부터 선물 받은 감정 중 하나인 슬픔을 제때 사용하지 못한 어른들의 빗나간 감정(라켓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울어야 할 때 울고, 애도의 시간에 애도하지 못하면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우울해질 것이다.

슬픔이란 감정의 의미를 소환해 준 선물 같은 동화

제5회 전국어린이독서감상문대회 도서로 선정된 《눈동자에 내려앉은 흰구름》은 아이와 햄스터, 그리고 슬픔이란 감정의 의미를 나의 기억에서 소환해 주었다. 동화는 소녀(영빈)와 다람쥐 이야기다. 부모님과 산책 중 만난 다람쥐 한 마리가 로드킬 당한 것을 목격하고 묻어주는 짧은 스토리지만 어른들이 잃어버린 감정, 슬픔을 되찾게 하는 힘센 작품이다. 슬픔은 결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눈물이란 정화제가 있기 때문이다. 동화 속 소녀의 눈동자에 흰구름이 내려앉을 수 있는 것도 맑고 영롱한 눈물이 고여 있기 때문이다.

어른도 한때는 울고 있는 아이였다

아빠는 영빈이가 상처를 받을까 혼자서 다람쥐를 묻어주겠다고 했지만, 영빈이는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주장한다. 슬픔이란 통과 의례와 애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영빈이가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게 아닐까. 소녀는 숙녀가 되고 인생이란 책장을 계속 넘겨가야 한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상처를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다람쥐를 묻어주고 애도의 시간을 갖음으로써 소녀는 인생의 첫 페이지를 아주 잘 넘겼기에 다음, 그 다음 페이지도 잘 넘겨갈 것이다. 울음은 생명의 시작이다. 울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도 슬픔의 감정을 숙이며 살아가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산다고 토로하면 서도 울음과 눈물에 인색한 게 어른들이다. 슬픔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 거라는 믿음은 슬픔의 순기능과 놀라운 치유의 힘을 모르는 착각일 뿐이다. “애처럼 울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처럼 울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슬픔은 아이를 어른으로 만들고, 어른을 흰 구름처럼 밝게 만들어 줄 것이다. 슬픔은 나쁜 감정도 어려운 감정도 아니다. 어른도 한때는 울고 있는 아이였음을 기억해 보라. 🍀



coverstory

이상한 나라의 고은별 ★ 동화의 시간을 비추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시계만 보고 달리는 토끼, 엉터리 규칙의 카드 귀족들,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는 19세기 '영광스런' 빅토리아시대 영국의 이면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떤가. 성장보다 성장통이 큰 나라. 병들고 늙어가는 나라. 아이들은 입시지옥에 갇히고, 젊은이는 취업경쟁에 내몰리고, 중년은 노후 불안에 떠는 나라. 누적관객 3,000만을 돌파한 '범피도시'에서 '기생충'들이 '오징어게임'을 하는 나라. 흥행을 하고 상을 휩쓸어도 웬지 쓸쓸한 나라. 상처받은 어른들의 화풀이 영화만 있고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동화가 없는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커녕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하늘. 고은별이 구연하는 동화는 어른들에게도 눈부시게 빛난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할머니집으로 향하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무덤을 돌아보는 영민이의 눈동자에 솜사탕같이 하얀 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 윤혜정 기자 news@globale.co.kr





방정환처럼 어린이를 사랑한 태극여전사

고은별의 한복은 기쁨이다. 엄마가 지어주신 옥색 치마저고리를 입으면 타국에서도 저절로 어깨가 펴졌다. 그 옷을 입고 아이들 앞에서면 지금도 엄마와 함께다. 고은별의 한복은 슬픔이다. 아직도 “엄마” 소리에 눈물이 고이는 이에게 충분히 그리워하라고 주어진 ‘애도의 시간’이다. 고은별의 한복은 두려움의 극복이다. 구경거리로 전락한 우리 옷을 입고 당당하게 활보하는 그녀는 한류전사다. 고은별의 한복은 분노다. ‘평화의 소녀상’과 마주하며 역사의 아픔을 상기하는 힘이다. 고은별은 하버드 익스텐션스쿨에서 영국 낭만주의 시를 공부했다. 파리 소르본대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ILPGA에서 기초음성학 디플롬을 취득한 후 귀국해 방송기자로 활동했다. 창원국제아동문학대회 집행위원, (사)어린이문화진흥회 사무국장을 지내고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원, 국제펜한국본부 번역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클래식기타와 우쿨렐레,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고은별은 <시와 동화>로 등단한 후 이어령 선생의 추천으로 첫 책 창작동화집 <나비아 나비아>을 냈다. <아빠와 크레파스>, <하늘을 나는 자전거>, <바다의 별>를 비롯해 <별>, <달님은>, <나는 내가 좋아요>, <파란 하늘 초록 숲> 등의 시를 지었다. 그림동화책 <파피용>(Papillon, 한글·프랑스어), 인터뷰 모음집 <만나고 싶은 사람>, 시집 <별의 노래>도 펴냈다. 고은별은 어른들의 시선과 평가가 어린이의 진실한 감정을 훼손하는 것을 경계했다. 아이는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의 기본 감정을 갖고



태어난다. 나머지는 기본 감정을 숨기려고 꾸며 낸 라켓감정이다. '슬픔'은 기어를 바꾸기 위해 밟는 자동차의 클러치다. 충분히 밟아야 슬픔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쓸 때 작가의 마음도 진실에 가까워진다. "어린이는 존재 자체로 완전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감정은 진실에 수렴한다. 현대인들은 시와 이야기를 읽을 시간이 필요하다. "동시와 동화 낭독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부산 영광도서에서 '영광의 어린이날 100주년 축하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시를 낭송하고 동요를 같이 부르며 동화 구연과 마리오네트 인형극과 비추미 인형극을 공연했죠." 100년 전 어린이 인권 선언을 한 방정환 선생은 <신데렐라>를 비롯한 세계명작 10편을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해 <사랑의 선물>을 펴냈다. 고은별도 한글과 프랑스어, 영어로 작품을 발표하고 다른 언어의 작품을 우리말로 소개한다. 방정환 선생은 마음이 맞는 동화작가들과 함께 '색동회'를 만들어 어린이문화운동에 매진했다. 고은별도 어린이문화진흥회와 한국아동문학인협회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방정환 선생은 어려운 시절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만년샤쓰>, <동생을 찾으러>, <칠칠단의 비밀> 등을 써 어린이들을 응원했다. 고은별도 다양한 언어로 동화와 동시를 써

어린이들을 응원하고 있다. "작은 어른'이 아닌 어린이 존재 자체를 존중한 방정환 선생의 뜻을 되새기며 어린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은별은 어린이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 '태극기정신'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외우죠. 주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건(乾☰)은 하늘, 곤(坤☷)은 땅, 감(坎☵)은 물, 리(離☲)는 불을 뜻하죠." 고은별은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제안한다.

☰ 나는 하늘처럼 곧세고 ☰
 땅처럼 유순하며
 물처럼 지혜롭고
 불처럼 밝으며
 태극처럼 조화롭게
 ☷ 살아가는 것을 다짐합니다 ☷

방정환의 <어린이 찬미>와 닮았다.

어린이가 자는 얼굴을 보라 / 하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 덕할 수 없는 참됨과 / 덕할 수 없는 착함과 / 덕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 그 위에 또 위대한 창조자의 힘까지 가진 / 어린 하늘님이 편안하게 고요한 잠을 잔다 /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 모든 것이 사랑이요 / 또 모든 것이 친한 동무다 / 뻗어 나가는 힘! / 뛰노는 생명의 힘! / 그것이 어린이다 🍀





‘애도의 시간’ 1교시

연분홍치마와 초인종소리 봄날은 가도 사랑은 변치 않아

기억 속에서 지금도 또렷하게 떠오르는 정경은 시골 논길을 걷다 풀밭에 앉아 토끼풀 꽃으로 꽃시계, 꽃반지를 만들어 내 손에 끼워 주셨던 청초하시고 더없이 아름다우신 어머니의 모습이다. 친정집에 가실 때 어린 내 손을 꼭 붙잡고 한발(지금의 대전) 논길을 걸으셨던 어머니. 나의 왼 손목엔 꽃시계가 손가락엔 꽃반지가 향기로웠다. 어느덧 해는 저물어 눈에서는 개구리가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그리운 박(朴), 선(仙)자 봉(逢)자 어머니님. 장난감과 인형이 귀하던 시절 어머니께서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 인형을 만들어 주셨다. 나는 종이 인형놀이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다. 중학생이던 어느 봄날 일요일, 여유롭게 늦잠을 자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유리창 아

래서 꿈결에 듣는 듯한 노랫소리
에 잠에서 깨어났다.

연분홍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웃고름 씹어 가며
산재비 남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시면서 노래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 어찌 이리도 아련한지……. 이제
는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딸들은 내 노래를
들으며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열 달간 고이 품어 피흘려 낳으시고
눈물로 키우셨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때문일까?
나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고 계신 고(高), 동(東)자 권(權)자 아버지님. 내가 아기였을 때 한밤중에 신열이나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져 의식을 잃자 아버지는 나를 안고 의사를 찾아 달려가셨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잠자고 있는 의사가 깨어나지 않자 자식을 살리려는 일념으로 문을 부셨고, 그때서야 의사가 나타나 치료해 살아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들려주시곤 했다. 사업을 하신 아버지는 밤 늦게 귀가하시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초인종소리에 달려가 문을 열어드리니 아버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셨다. 나는 아버지를 내 어깨에 기대게 해 드리고 들어

왔는데, 아버지께서는 들고 오신 과자 봉투를 내 손에 꼭 쥐어 주셨다. 평양이 고향이신 실향민으로 북에 계신 가족을 늘 그리워하셨던 아버지. 자수성가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을까? 그 외로움은 또 얼마나 깊으셨을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딸 집에 머무셨던 2016년 설날, 가족들이 모여 세배를 드리고 명절음식을 맛있게 먹

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사진도 찍었다. 어느 날, 거실에서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시며 고향 생각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며 울음을 삼키셨던 아버지. 언젠가는 아버지 고향을 찾아가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를 참배하고, 살아계시다면 고모님과 작은 아버님을 만나 뵙고 싶다. 나의 소원은 통일,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은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니,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



어머니 박선봉 여사와 아버지 고동권 선생

‘애도의 시간’ 2교시

언어의 불꽃, 이어령 선생님! 낙서마저 아름다운 영국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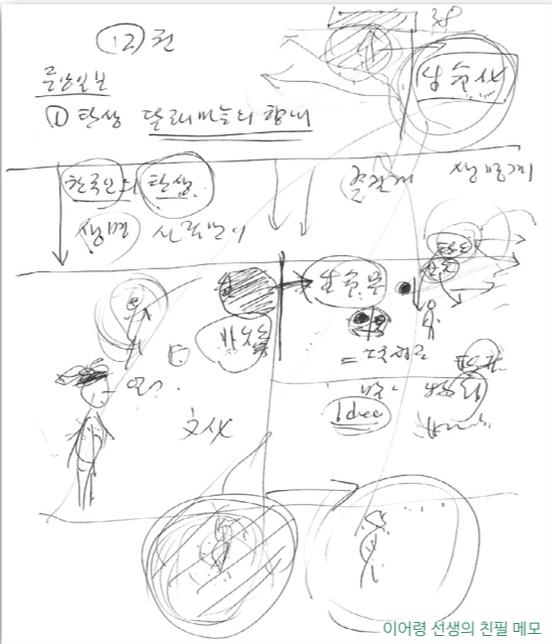
동심(童心)이었다. 그리고 부성애(父性愛)……. 두 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대화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골길을 따라 할머니집으로 가는 어린아이. 작은 아이의 눈망울에 비쳐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던 빛줄기, 눈부신 햇살……. 그 생명의 빛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을까? 장관, 교수, 비평가, 희극작가, 소설가, 시인……. 화려한 그 많은 직함을 뒤로하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는 이어령 중앙일보 그문에

게서 소탈한 인간미와 인격의 깊이가 느껴졌다. 이야기는 시냇물처럼 음악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무궁무진한 언어의 보고(寶庫)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폭발하면서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만 같았다. <만나고 싶은 사람, 이어령 편> 중에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등단하고 인터뷰책을 준비하며 다시 되었다. 책이 나오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만날 약속을 잡아주셨다. 책에 정성껏 사인을 하고 글을 사서 평창동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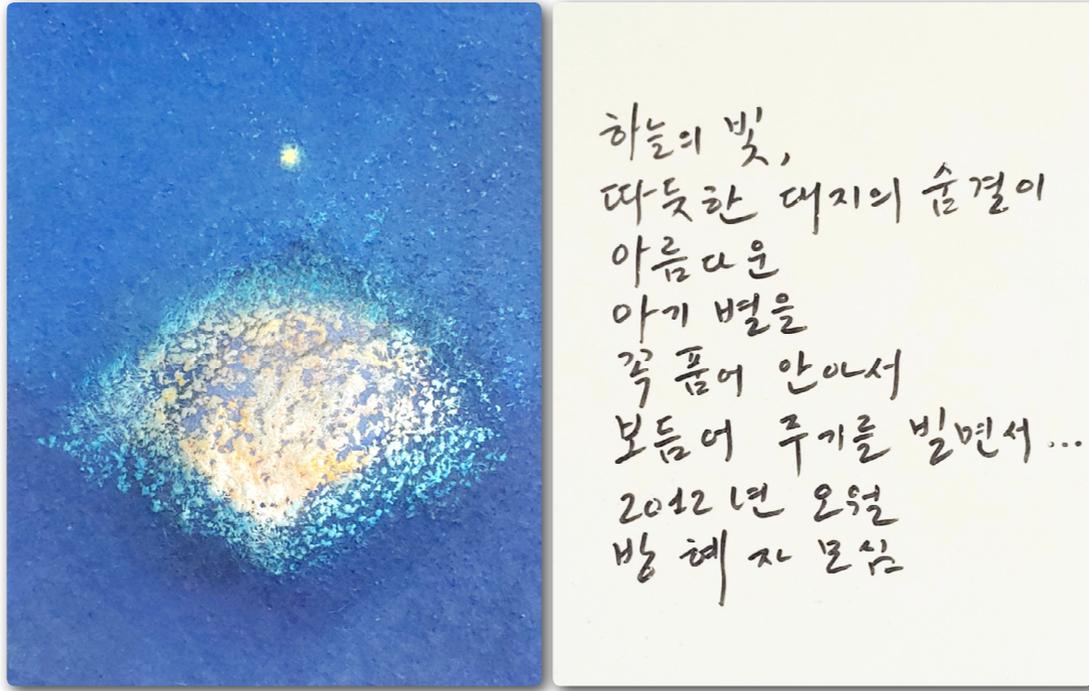
갔다. 표지부터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신 선생님의 얼굴에 잔잔하게 희색이 돌았다. “잘 만들었어요. 사진 한 장 같이 찍어요.” 그 사진으로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하고 선생님을 추모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됐다.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와 넥타이, 커피스를 하신 소매까지 선생님은 멋쟁이 영국신사였다. 파리에서 쓴 시를 드리니 “시가 좋다” 하셨다. 책상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 종이에 글을 쓰시는 선생님의 손을 비추었다. 펜을 쥐 손가락이 빛 속에

서 환하게 움직였다. <한국인 이야기>를 집필하실 때, 매일 평창동 언덕을 올라 선생님을 도와드렸다. 아침회의 때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았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기쁨의 노래가 절로 나왔다. 🍀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에서 이어령 선생님

이러령 선생의 친필 메모



‘애도의 시간’ 3교시

빛의 생명력, 방혜자 선생님

“나는 기쁨, 나는 평화, 나는 사랑,
나는 행복. 나는 건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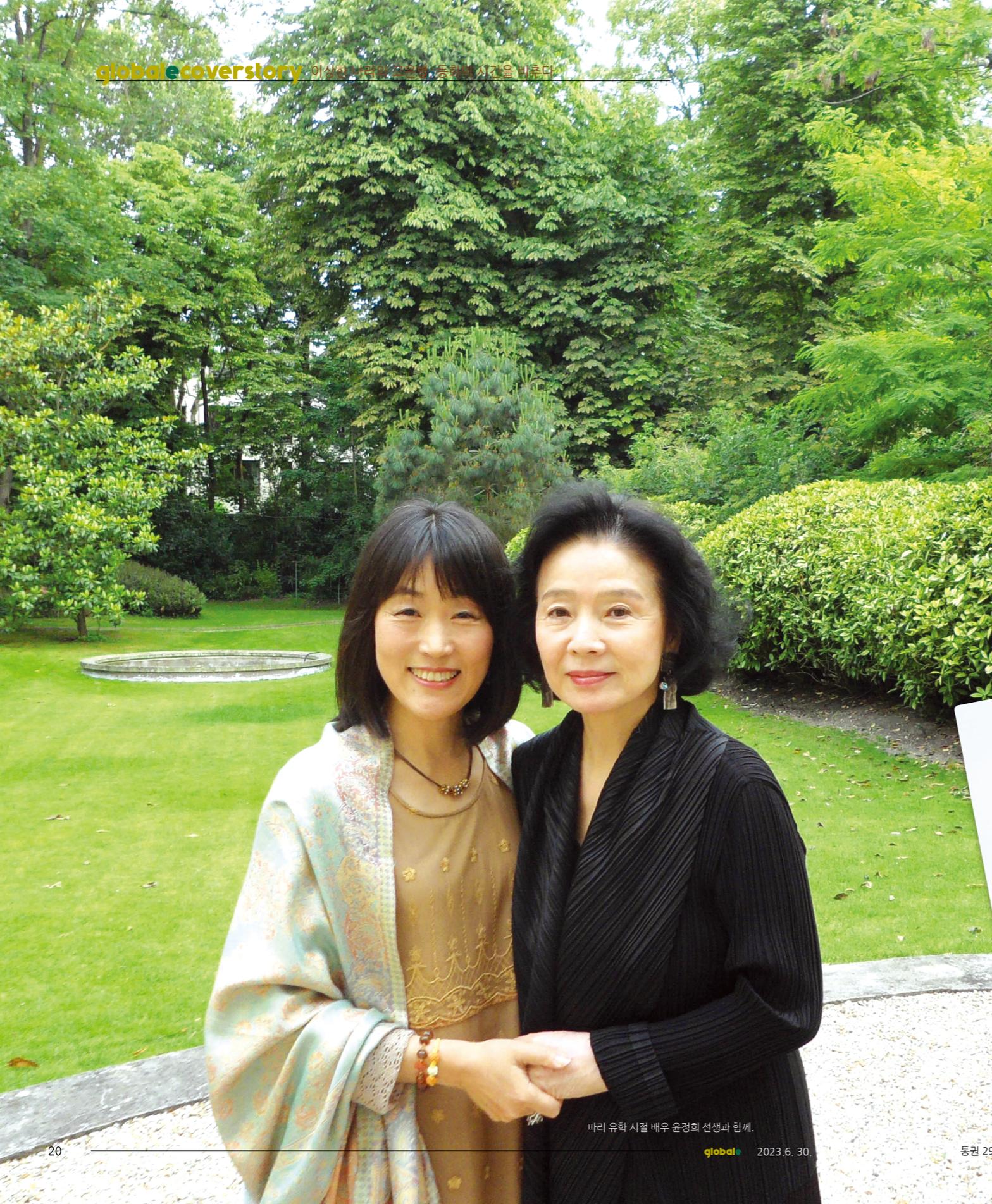


2005년 가을, 전등사 전시회 <생명의 숨결>에서 만난 그림들은 빛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림을 보고 있으니 생명의 색과 빛의 에너지가 전해졌다. 내려가는 길에 방혜자 화백과 운명처럼 마주쳤다. 운명은 인연이 됐다. 2010년 내가 파리에 건너가 다시 만났다. 유리 너머로 푸른 잎이 보이는 피라미드구조의 2층 화실에는 그림과 도구들로 가득했다. 안쪽에는 요가 깔려 있는 방이 있었고 작은 부엌에는 탁자가 놓여 있었다. 선생님은 작고 가냘픈 체구였는데 전시회 때마다 파스텔톤의 고운 생활한복을 입으셨다. 2012년 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문안을 오셔서 누워있는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는데 따듯한 기운이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랑이 물결처럼 흘러 들었다.” 2013년 여름에는 프랑스 남부 아주스(Ajoux) 시골집에 머물며 요양했는데 선생님은 기수련을 권하시면서 시범을 보여주셨다. “나는 기쁨, 나는 평화, 나는 사랑, 나는 행복. 나는 건강하다.” 선생님의 주문을 따라 중얼거렸다. 2022년 여름, 선생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스로 뵈러 갔다. 하루 동안의 재회였지만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나의 살던 고향>을 불러드리면 선생님도 조용히 따라 부르셨다. 동화책도 읽어드리고 지현 김기철 선생의 편지도 읽어드렸다. 잠시 누워 쉬고 계셨던 선생님이 스르르 잠에 빠져 들었다. 입고 있던 하얀 겹옷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나와 산책

하고 돌아와 보니 선생님께서 그 옷을 입고 계셨다. 수줍게 웃고 계신 선생님은 하얀 날개옷을 입은 듯했다. 🌸

방혜자(1937-2022) 화백은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파리로 건너가 벽화와 판화를 배웠다. 결혼 후 파리를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일본 등지에서 90회에 달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어릴 적 시냇가에서 비친 햇빛을 화폭에 담는 데 전념한 ‘빛의 화가’다. 자연의 재료로 우주와 대지, 생명과 빛을 한지에 담아냈다. 유작이 2021년 샤르트르대성당 종교참사회의실 스테인드글라스창으로 완성됐다. 모나코 국제현대예술제에서 ‘성(聖)미술상’, 몽루주와 라 웨리예르 시(市)에서는 예술훈장을 받았다. 서울대와 성심여대 강단에 섰으며 2008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인상 특별상, 2010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2012년 제11회 한불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파리 유학 시절 배우 윤정희 선생과 함께.



바이런 대저택에서.



소르본대 친구들과 함께.

고은별의 동화 눈동자에 내려앉은 흰 구름

Nuages blancs posés sur la prunelle



글 | 고은별(GoEunByeol)
그림 | 와이(Y), 린(Lin)

재정사 JJbooks



어린이문학진흥회

제5회 전국어린이독서감상문대회

접수 기간 2023년 7월 1일 ~ 8월 5일까지 (선착순 접수)

- 참가 자격: 초등학교 저학년부, 중학년부, 고학년부, 성인
- 접수 기간: 2023년 7월 1일 ~ 8월 5일까지 인터넷 접수
- 발표: 2023년 8월 15일(일) 시상식과 장소는 어린이문학진흥회 카페 <http://cafe.daum.net/childculture> 및 개별 통보
- 출품권 대상 도서: 각 부문별 대상 도서 5권, 준 1권 1권
- 접수 방법: 각 부문별 내장 도서를 읽고, A4 용지 1매에 도서감상문의 형식 아래함에 원문과 일인용 제출
- 보낼 곳: ahsumam@hanmail.net 첫 앞에 이름·학교·학년과 반·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음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1명, 상장 및 20만 원에 해당하는 도서
 - 우수상 2명, 상장 및 10만 원에 해당하는 도서
 - 장려상 3명, 상장 및 5만 원에 해당하는 도서
- 후원: 카광·가문어린이고래책방·고요아침·김빛이어린이담게·시선사·신아출판사·윙트러인·에디트·제정사·캐미중·매년경원·푸른모래
- 참가 문의: 최근희 010-7489-6701 양규옥 010-3774-4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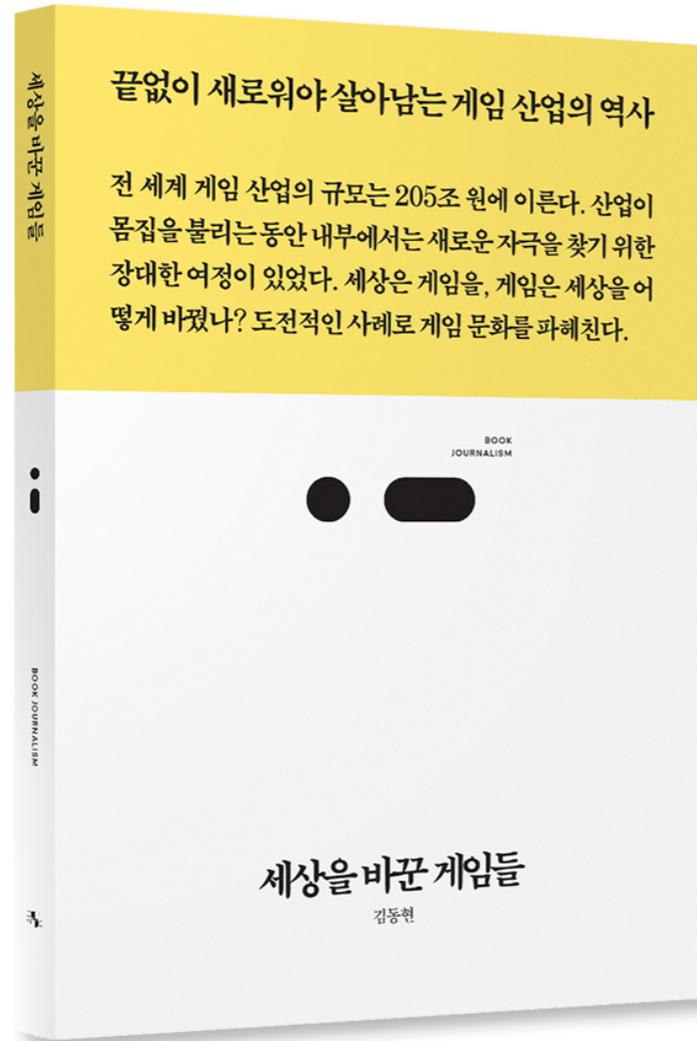
제5회 전국어린이독서감상문대회 운영위원장 최근희

《눈동자에 내려 앉은 흰구름》은 고은별 작가의 글에 와이(Y·윤문영)가 그림을 그렸다. 와이는 홍익대 서양학과 졸업 후 제일기획 제작국장 시절부터 독립프로덕션 활동 때까지 <오란씨> <맥스웰 커피> <고래밥> 등 300여 편의 CF를 연출하고 <돌> <폴꽃> <군함도> <할아버지의 방패> <슬픈 승리> 등의 그림책을 펴냈다. 그래픽 일러스트는 영국왕립예술대(Royal College of Art)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나를 변화시킨 스마트폰>을 쓴 린(Lin·김린)이 맡았다. 동화를 쓴 고은별 작가는 프랑스어를 병기해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작가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했다. 그림은 수채화 같은 맑고 투명한 원화에 그래픽 일러스트 작업이 더해졌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파스텔톤이 따뜻하다. 이 책은 어린이문학진흥회에서 다섯 번째로 열리는 전국어린이독서감상문대회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부의 도서로 선정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초등학교생이라면 누구나 대상도서 중 한 권을 읽고 A4용지 1.5매 이내의 감상문을 이메일(ahsumam@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발표는 8월 15일에 개별통보와 더불어 어린이문학진흥회의 다음카페에 공지된다.

이들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 보라

이임광 편집국장

스마일게이트·엔씨소프트·넷마블·네오위즈·엔게임즈·카카오게임즈·컴투스·위메이드·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컴투스·위메이드·펄어비스

NHN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네오위즈·엔게임



〈인베이터〉는 가물가물하고 〈갤러그〉는 생각한다. 국민학생이던 1980년대 초 서울 화곡동 전자오락실 풍경도. 〈하이퍼올림픽〉은 버튼 때리는 속도가 관건이었다. 활명수병 두 개를 손가락에 끼우고 부채꼴로 고속 왕복시키거나 플라스틱자를 버튼 위에 대고 튕기는 식의 아날로그 치트키를 쓰는 선수들이 존경스러웠다. 50원으로 종일 노는 ‘죽돌이’에게 주인이 100원을 쥐어주며 등을 떠미는 것도 봤다. 게임엔 췌병인 나는 들어온 지 10분도 안 돼 ‘INSERT’ 할 ‘COIN’이 떨어져 입맛만 다시다 나왔는데 게임도 재미가 소질을 이길 수 없음을 그때 알았다. 중학교 때 오락실 간 기억은 없고 고3 때 ‘야자’ 끝나고 친구 따라 몇 번 갔었다. 〈스트리트파이터〉는 무패였다. 친구가. 모의고사 점수가 나

보다 나오지 않던 친구는 승리감에 우쭐했지만 나는 진짜 길거리에서 얻어터진 것도 아니며 패배감 같은 건 없었다. 둘의 승패감이 비대칭이니 게임이 ‘CONTINUED’ 되지 못했다. 〈너구리〉, 〈테트리스〉, 〈보글보글〉도 해봤는데 역시 공부가 제일 쉬웠다. 대학에 가서 스트리트파이터가 되긴 했다. 게임이 아니라 실전 ‘가투(街鬪)’에서 전경, 백골단과 나름 선전했다.

동네 오락실에 머문 게임의 흐릿한 기억

제대하고 복학했을 땐 PC방과 〈스타크래프트〉가 대유행이었는데 들어만 봤지 해본 적도, 하는 걸 본 적도 없다. 기자가 되고 IT 벤처 담당을 2년 정도 하면서 게임업체도 몇 곳 취재했다. 김택

진 엔씨소프트 사장을 이마가 닿을 만큼 좁은 방에서 인터뷰했고 게임업계선 드문 여성 CEO인 박지영 컴투스 대표도 만났지만 이제껏 〈리니지〉를 해본 적도 없고, 당시 컴투스의 게임이 뭐였는지도 모른다. 게임이 나의 역사에 한 번 더 개입하긴 했다. 난생 처음 가본 PC방에서 전우가 된 아빠의 계속되는 전사에 짜증이 난 아들은 중2의 인내심을 끌어모아 설명하면서 내가 인수분해를 설명할 때보다 열 배쯤 답답해 하다 결국 포기했다. 내가 해본 마지막 게임이 〈서든어택〉인 것도, 그게 넥슨 거란 사실도 이 글을 쓰다 아들한테 물어서 알았다.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서 PC방에서 살 때가 많은데 그 날도 내 질문에 ‘기습’ 당한 눈치였다. 50이 다 되도록 게임에 대한 나의 기억은 동네 오락실에 머물러 있었다. 게임



이 흐릿한 기억의 한켠에서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무대로 올라온 것은 4년 전 언론계로 돌아와 편집국장을 맡으면서다. 20년도 안 돼 게임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아니 게임의 세상이 됐다. 게임의 역사는 나의 이력을 압도한다. 신참 기자도 '감사히' 만나준 김택진은 회사를 수백 배로 키운 후 재벌회장처럼 은둔하며 야구장에서 구단주로 출몰한다. 박지영 대표는 영국 가 선정된 '세계 모바일콘텐츠업계 50대 여성 경영인'에 이름을 올렸고 매각한 벤처 컴투스도 초대형 게임사로 거듭났다. 나와 같은 대학, 같은 학번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오너는 내가 근무했던 <포브스>(한국판)가 선정된 주식부자 5위에 올랐다. 나의 주요 취재 대상이던 한라그룹, STX, 한미약품을 거쳐 넷마블로 영전한 박세진 상무는 게임산업의 위상 변천을 대변한다.

세상을 바꾼 게임
역사의 무대에 오르다

내가 초년에 몸담은 웅진외의 계열사였던 코웨이가 넷마블에 인수된 것도 충격이었다. 나는 4년 전만 해도 넷마블이란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고 '모두의 마블'에 나는 없었다. 지하철역과 버스, 택시마다 신작게임 광고들로 도배가 된 지 오래고 TV광고에선 중견배우가 전사 복장을 하고 진지하게 연기한다. 종합지인 <글로벌e>도 게임기사 비중과 트래픽이 가장 높고 광고매출의 20% 이상이 게



임에서 발생한다. 최근 출간된 《세상을 바꾼 게임들》은 내가 놓친 게임의 시간을 역사로 되살린 역작이다. '변방의 오락실'이 '중원의 산업'으로 상전벽해한 격세지감의 수수께끼를 풀어준 논리정연한 해설서다. 게임산업 역시 하루아침에 우연히 폭발한 것이 아니라 만인의 도전과 만인의 실패와 만인의 무한경쟁을 거치며 진화한 필연의 산물임을 입증했

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내가 게임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차고 넘쳤다. 코 문은 돈 버는 오락실쯤으로 경시했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합법적 도박으로 치부했고, 현실에서의 패배감을 회복하는 필요악으로 규정했으며 중독성과 선정성이 아들의 학업을 방해하고 정신건강을 해칠 거라 단정하고 비난했다. 그러는 동안 게임이 놀이에서 문화로, 역사로, 문학으

로, 첨단기술의 종합예술로, 급기야 세계관을 창조하는 인문학의 장르로 확장되고 승화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현실세계보다 박진감 넘치는 가상세계가 동시대에 존재하고 진화하고 있음을 나는 애써 부정하고 간과했다. 이 책은 그 넓고 깊은 편견의 공백과 골을 메우고도 남는다. 또 하나의 큰 수확은 '김동현'이라는 '게임 역사가'의 출현이다. 책을 집필한



김동현은 게임이 좋아 게이머와 게임개발자를 꿈꾸었고 게이머이자 됐다. 여러 게임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게임인들과 동고동락하기도 했다. 김동현에게 게임은 취미이자 특기였고, 꿈이자 도전이었으며, 때론 실패였고 그래서 녹록지 않은 생계이기도 했다. 게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책도 김동현의 삶과 일과 꿈, 끼와 땀과 눈물이 오

랜 세월 빛어낸 결과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받아쓰고 베껴쓰는, 한심하고 참담한 뉴스의 시대, 보고 듣는 것을 넘어 파고들어 해보고 쓰는 기사는 실감나고 날카롭고 냉정하기까지 하다. 박민제 위메이드 이사는 김동현을 "최고의 게임애널리스트"라고 했고, 유명진 컴투스 실장은 "개발자들의 업데이트컨설턴트"라고 했으며 황현돈 넷마블 실장은 "너무 잘 써서

무서운 기자"라고 평했다. 그 기사들이 모여 역사책이 됐다. 김동현은 <글로벌e>의 모토 『우리의 기사는 역사가 된다』를 가장 잘 실현한 기자다. 이 책은 게임의 시대를 축복하는 선물이며 저자 김동현은 퇴색한 게임저널리즘을 빛낼 보물이다. 역사는 오래된 미래다. 게임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친절한 게임사(史) 《세상을 바꾼 게임들》을 읽어 보라. 📖



집결하라, 그리고
영광의 역사를 계승하라

위대한 영웅들의 MMORPG

ZENONIA
CHRONOBREAK